

오지가타케의 역사

오지가타케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설에는 고대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 왕국에서 온 8명의 왕자가 이 부근의 산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지가타케에 왕족이 살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세토 내해 지역과 7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연관성은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백제는 663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정복당했고, 패전한 백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민 중에는 세토 내해 연안에 백제식 요새를 짓기 위한 기술자와 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새들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지가타케라는 이름의 또 다른 유래로는 신도와 불교의 요소를 포함한 고대 산악 신앙인 슈겐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슈겐도 신도들은 산과 같은 외딴 곳이나 혹독한 환경의 장소에서 정신 수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겐도의 주요 순례길에는 오지 신사라는 작은 신사가 곳곳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와카야마현의 구마노 고도가 유명합니다. 오지 신사는 전통적으로 순례자들의 휴식처이자 예배 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오지가타케와 그 주변에서 여러 개의 오지 신사의 흔적이 발견되어, 슈겐도의 신도들이 이 산을 수행의 장소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아마도 산비탈의 동굴에 몸을 의탁했을 것입니다.